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교육 요구도

조근자* · 최은숙* · 이현주**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Assessment of First Aid Education on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Keun-Ja Cho* · Eun-Sook Choi* · Hyeun-Ju Lee**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초등학교는 다수의 성장기 어린이들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으며, 학교는 상대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응급상황은 덜 흔하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중요하다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2005년 7월에 발표된 『'05~'10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선진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강화,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응급의료의 보장성 강화,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의 구축을 분야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중 ‘응급의료의 선진화 기반의 구축’을 위한 핵심추진과제에 ‘응급의료생활화교육기반 확대’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건교사 등의 보수교육시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추진하여 학교응급처치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학교교육 과정 중 응급처치교

육과정을 정규배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²⁾. 또한 2007. 9.1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도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³⁾, 국가적 차원에서도 학교의 응급처치 교육이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응급처치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볼 때, 김⁴⁾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에게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와 환자 상태확인인 응급처치 실기교육 후 지식이 증가하고 응급처치기술수행 정확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김⁵⁾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기본심폐소생술 실기교육프로그램 후 지식과 술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홍 등⁶⁾은 중·고등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과 응급처치의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각종 사고나 급성 질병이 빈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령기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⁷⁾의 연구에서도 학교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 공주대학교 보건학부 전문응급구조학전공
공주대학교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

** 충남 공주시 수촌초등학교

라의 경우 학교교육에서의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나 중학교에서 효과적이며 질 높은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초·중·고 교과서의 응급처치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교과서에서 다루는 응급처치 내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도움요 및 상처 응급처치 내용만이 3, 4, 5, 6학년 교과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었고, 생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러나 Lester 등⁹⁾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가 파급효과 면에서 중요한 응급처치교육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교육효과 면에서도 심폐소생술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가 가장 적절한 시기로 언급되었고¹⁰⁾, Lewis 등¹¹⁾도 응급처치 실기교육이 가능한 연령을 11세부터라고 하였고, Eisenburger & Safar¹²⁾도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빨리 배우고, 동기유발이 쉬우며,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과 어른들에게 전달 교육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응급처치교육을 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언급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과 실기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응급처치교육요구도 및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초등학교 고학년생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

(2) 응급처치 교육 실태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수강경험 유무,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방법, 응급처치 교육 받은 경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자,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의미한다.

(2)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 내용을 요구도에 따라 내용별로 원치 않음 1점, 원함 2점, 매우 원함 3점 척도로 만들어진 연구도구에 기록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 및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K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4개교 중에서 지역적인 위치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8개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초등학교의 5학년 또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보건교사 보수교육시 미리 선정된 초등학교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학교를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240부를 배부하여 195부가 회수되었으며 미기재된 내용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3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 5문항,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 4문항, 응급처치교육요구도 15문항과 실기교육요구 우선순위 1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김⁴⁾, 고와 이¹³⁾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 보건교사 3인이 검토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였고 10명의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정하였다. 응급처치교육요구도는 원치 않음 1점, 원함 2점, 매우 원함 3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3$ 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2.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요구도,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5학년이 172명(94.0%), 6학년이 11명(6.0%)이었고, 나이는 만 10세 84명(45.9%), 만 11세 78명(42.6%), 만 12세 21명(11.5%) 순이었다. 성별은 남자 80명(43.7%), 여자 103명(56.3%)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교회 다니기)가 8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없다 59명(32.0%), 불교(절에 다니기) 34명(18.8%), 천주교(성당 다니기) 4명(2.2%)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18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46명(25.1%)으로 두 번째였다.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으로는 없는 경우가 100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RCY(알씨와이) 53명(29.0%), 아람단 10명(5.5%), 걸스카우트 9명(4.9%), 기타 9명(4.9%), 보이스카우트 2명(1.1%) 순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차이는 3점 척도에서 학년별로는 5학년이 $2.30 \pm .48$ 로 높았고, 나이별로는 만 12세가 $2.38 \pm .54$ 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가 $2.33 \pm .44$ 로 높았고, 종교별로는 천주교가 $2.71 \pm .34$ 로 가장 높았고, 불교 $2.42 \pm .38$, 기독교 $2.27 \pm .4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차이 (N = 183)

특 성	구 분	N(%)	요구도		t or F	p
			M	SD		
학 년	5학년	172(94.0)	2.30	.48	.464	.643
	6학년	11(6.0)	2.18	.21		
나 이	만 10세	84(45.9)	2.29	.46	.249	.780
	만 11세	78(42.6)	2.28	.49		
	만 12세	21(11.5)	2.38	.54		
성 별	남	80(43.7)	2.33	.44	1.072	.286
	여	103(56.3)	2.23	.50		
종 교	없다	59(32.0)	2.18	.53	1.667	.162
	기독교(교회 다니기)	84(45.9)	2.27	.48		
	천주교(성당 다니기)	4(2.2)	2.71	.34		
	불교(절에 다니기)	34(18.8)	2.42	.38		
	기타	2(1.1)	2.20	.28		
주거형태	단독주택	118(64.5)	2.31	.45	1.378	.253
	아파트	46(25.1)	2.29	.53		
	상가주택(가게에 딸린 집)	8(4.4)	2.22	.32		
	기 타	11(6.0)	2.60	.39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	RCY(알씨와이)	53(29.0)	2.36	.49	.777	.568
	걸스카우트	9(4.9)	2.54	.28		
	보이스카우트	2(1.1)	2.23	.33		
	아람단	10(5.5)	2.25	.75		
	기 타	9(4.9)	2.30	.42		
	없음	100(54.6)	2.23	.46		

순이었으며, 주거형태별로는 기타 2.60 ± .39, 단독주택 2.31 ± .45, 아파트 2.29 ± .53순이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 중에서는 걸스카우트가 2.54 ± .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RCY 2.36 ± .49 순이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요구도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3.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 수강경험관련 특성은 응급처치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3명(78.1%),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40명(21.9%)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교육경로는 다중응답으로 학교가 119명(67.2%)으로 가장 높았고, 텔레비전 24명

(13.6%), 응급처치교육전문기관 13명(7.3%), 준거집단(동아리) 9명(5.1%) 순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방법으로는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이 67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론수업 + 실습이 52명(28.3%), 이론수업만 29명(15.8%),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13명(7.5%) 순이었다.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자는 다중응답으로 보건교사가 112명(79.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1명(15.0%), 담임선생님 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내용은 다중응답으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이 93명(1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67명(12.3%),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62명(11.4%), 지혈법 60명(11.0%),

〈표 2〉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및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N = 183)

특 성	구 분	N(%)	교육요구도		t or F	p
			M	±SD		
응급처치교육 수강경험 유무	예	143(78.1)	2.26	± .48	-1.464	.146
	아니오	40(21.9)	2.42	± .43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방법	이론수업만	29(15.8)	1.92	± .64	2.563	.025*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13(7.5)	2.36	± .38		
	이론수업 + 시범	8(4.2)	1.83	± .68		
	이론수업 + 실습	52(28.3)	2.47	± .36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67(36.7)	2.33	± .47		
	실습먼저한 후 이론수업	8(4.2)	2.30	± .47		
	실습만	6(3.3)	2.00	± .00		

* p < .05

상처처치법 57명(10.5%),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55명(10.1%) 순으로 나타났다(표 2, 3).

4.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및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3점 만점의 교육요구도에서 2.42로 교육수강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응급처치교육방법에 따라서는 이론수업 + 실습으로 교육받은 경우가 2.47로 가장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2.36,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2.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을 하지 않고 이론수업만 했거나(1.92) 이론수업 + 시범(1.83)으로 교육한 경우가 교육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563, p = .025) (표 2).

5.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는 165명(90.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명(9.8%)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받을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137명(74.9%)이 교육받겠다고 응답하였고, 46명(25.1%)은 교육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방법으로는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73명(53.3%), 이론수업 + 실습 23명(16.8%), 이론수업 + 시범 11명(8.0%) 순으로 나타났다(표 4).

6.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는 3점 만점에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32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교육요구도(1.92)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 = 2.474, p = .015),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받을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가 2.30으로 교육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1.77)보다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 2.253, p = .026).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방법에 따라서는 실

〈표 3〉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N(%)
응급처치교육 경로 (다중응답)	학교	119(65.0)
	텔레비전	24(13.1)
	인터넷에서 혼자 배움	5(2.7)
	준거집단(동아리)	9(4.9)
	응급처치교육전문기관	13(7.1)
	기타	7(3.8)
	합계	177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자 (다중응답)	보건선생님	112(61.2)
	체육선생님	1(0.6)
	담임선생님	5(2.7)
	다른 교과목 선생님	2(1.1)
	기타	21(11.5)
	합계	141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 내용 (다중응답)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93(50.8)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55(30.1)
	지혈법(피를 멈추게 하는 법)	60(32.8)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57(31.1)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법)	62(33.9)
	동물이나 벌레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20(10.9)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24(13.1)
	쇼크 처치법(피를 많이 흘렸거나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 처치법)	13(7.1)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30(16.4)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어주기)	67(36.6)
	중독처치법(농약 등의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 처치법)	13(7.1)
	환경응급 처치법(열사병, 열피로, 물에 빠짐 등)	16(8.7)
	내과적 응급 처치법(갑자기 배가 아픴, 간질(발작),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뇌졸중)	10(5.5)
	정신응급 처치법(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등)	16(8.7)
	응급환자운반법	9(4.9)
	합계	545

습면저 한 후 이론수업이 2.56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2.37, 이론수업 + 시범 2.28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4〉).

7.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구도 및 집중적인 응급처치 실기교육 요구 우선 순위

응급처치교육요구도는 3점 척도로 전체적인 평

〈표 4〉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

특 성	구 분	N(%)	교육요구도		t or F	p
			M± SD			
응급처치교육 필요 유무	예	165(90.2)	2.32± .46		2.474	.015*
	아니오	18(9.8)	1.92± .61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시 수강유무	예	137(74.9)	2.30± .46		2.253	.026*
	아니오	46(25.1)	1.77± .58			
원하는 응급처치 교육 방법	이론수업만	7(5.1)	2.19± .58		1.365	.227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8(5.8)	2.14± .31			
	이론수업 + 시범	11(8.0)	2.28± .41			
	이론수업 + 실습	23(16.8)	2.18± .57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	73(53.3)	2.37± .48			
	실습먼저 한 후 이론수업	6(4.4)	2.56± .42			
	실습만	9(6.6)	1.97± .31			

* p < .05

〈표 5〉 응급처치 내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내 용	교육요구도	
	M± SD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2.06± .64	
일차적인 상황파악(환자 상태 확인) 방법	2.30± .60	
지혈법(피를 멈추게 하는 법)	2.32± .65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2.33± .63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법)	2.38± .59	
동물이나 벌레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 처치법	2.21± .58	
눈, 코, 귀의 이물질 제거법	2.26± .63	
쇼크 처치법(피를 많이 흘렸거나 충격으로 쓰러졌을 때 처치법)	2.34± .69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2.41± .65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어주기)	2.29± .67	
중독처치법(농약 등의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 처치법)	2.31± .67	
환경응급 처치법(열사병, 열피로, 물에 빠짐 등)	2.32± .64	
내과적 응급 처치법(갑자기 배가 아픔, 간질(발작),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뇌졸중)	2.34± .64	
정신응급 처치법(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행 등)	2.30± .68	
응급환자운반법	2.22± .61	
전체 평균	2.29± .48	

균은 2.29이었으며,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이 2.41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38, 내과적 응급 처치법(갑자기 배가 아픔, 간질(발작),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뇌졸중) 2.34, 쇼크 처치법(피를 많이 흘렸거나 충격

으로 쓰러졌을 때 처치법) 2.34, 상처처치법 2.33, 지혈법 2.32 순이었으며,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은 2.06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서

〈표 6〉 집중적인 응급처치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N = 137)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교육 내용	N	(%)
1순위	환자상태확인방법	52	38.0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27	19.7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21	15.3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16	11.7
	응급환자운반법	11	8.0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10	7.3
2순위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31	22.6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30	21.9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30	21.9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19	13.9
	환자상태확인방법	16	11.7
	응급환자운반법	11	8.0
3순위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28	20.4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27	19.7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26	19.0
	환자상태확인방법	23	16.8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22	16.1
	응급환자운반법	11	8.0
4순위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37	27.0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37	27.0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22	16.1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16	11.7
	응급환자운반법	15	10.9
	환자상태확인방법	10	7.3

는 1순위가 환자상태확인방법 52명(38.0%), 심폐소생술 27명(19.7%), 상처처치법 21명(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31명(22.6), 심폐소생술 30명(21.9%), 기도폐쇄처치법 30명(21.9%), 상처처치법 19명(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8명(20.4%), 기도폐쇄처치법 27명(19.7%), 심폐소생술

26명(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4순위는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37명(27.0), 상처처치법 37명(27.0%)으로 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순위는 환자상태확인방법 33명(24.1%), 상처처치법 27명(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6순위로 가장 응답을 많이 한 실기교육은 응급환자운반법 75명(54.7%)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표 6).

〈표 6〉 (계속)

실기교육 요구 우선순위	교육 내용	N	(%)
5순위	환자상태확인방법	33	24.1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27	19.7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23	16.8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19	13.9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19	13.9
	응급환자운반법	16	11.6
	응급환자운반법	75	54.7
6순위	기도폐쇄처치법(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24	17.5
	상처처치법(베이거나 찢어진 상처, 화상, 동상 등 처치법, 피를 멈추게 하는 법 포함)	15	11.0
	심폐소생술(심장압박과 숨 불어넣기)	13	9.5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뼈가 부러지거나 빠거나 부어오를 때 고정해주는 방법과 붕대를 감아주는 법)	6	4.4
	환자상태확인방법	4	2.9

IV. 고 찰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학년, 나이, 성별, 종교, 주거형태, 현재 활동 중인 준거집단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형태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이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 아닌 중소도시여서 64.5%(118명)가 단독주택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 주변 환경 위험요소에 따른 응급 상황 발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준거집단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RCY 회원이 관심도가 높아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준거집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서는 요구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홍 등⁶⁾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응급처치 지식수준에서 학력, 형제자매수, 현거주지, 어머니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교육정도, 보호자의 직업,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21.9%(40명)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⁴⁾의 20.9%(23명)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교육방법은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이 36.7%(67명) 이론수업 + 실습이 28.3%(52명), 이론수업만 받은 경우가 15.8%(29명)로 나타났고, 교육요구도는 이론수업과 실습을 병행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47), 이론수업만 받은 경우(1.92)와 이론수업과 시범방법으로 교육한 경우가 낮게 나타났으며(1.83),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요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563, p = .025).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또는 시범 + 실습이 36.7%, 이론수업 + 실습이 28.3%(52명)로 나타났으나 김 등의 연구⁷⁾에서 응급처치교육시 애로점 중 교육보조자료의 부족이 48.3%(70명), 교육보조자료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71.1%(104명)로 나타난 점으

로 미루어 본다면 세월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질 높은 실습을 위해서 교육보조자료와 필수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로로는 학교 65.0%(119명), 텔레비전 13.1%(24명)로 나타났는데, 김⁴⁾의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식습득이 18.2%(2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홍 등⁶⁾의 연구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받은 경우가 150점 만점의 지식수준 척도에서 103.61 ± 22.59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는 독학 다음순위로 96.27 ± 19.17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자는 보건교사가 61.2%(112명)로 가장 많았고 체육교사는 0.6%(1명)로 나타난 반면, 김 등⁷⁾의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체육교사가 62.5%(90명)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건교사 보급률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학교 체육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정도는 이론적 지식정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2.3%(31명), 실기지도능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1%(35명), 심장마사지 시범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4%(47명), 인공호흡시범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6%(69명)로 나타나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론적 지식의 부족, 실기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교육내용으로는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50.8%(93명), 심폐소생술 36.6%(67명),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33.9%(62명), 지혈법 32.8%(60명), 상처처치법 31.1%(57명), 일차적인 상황과약(환자 상태 확인) 방법 30.1%(5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에 실린 응급처치 내용 분석에서 도움요청과 상처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과⁸⁾ 일맥상통하며, 특히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중 골절, 관절 염좌와 관

련된 사고가 70.3%¹⁴⁾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학교에서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상자의 교육요구도에서 3점 만점에 2.38로 2위를 차지한 점, 집중적인 실기교육 우선 순위에서도 2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으로 미루어 응급상황 발생률과 교육요구도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에서 골절(탈구, 염좌)에 대한 교육내용은 4학년 때에만 1회성으로 포함되어 있어⁸⁾ 현실과 매우 거리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다중응답상 33.9%가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들이 실제응급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응급처치교육요구도관련 특성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0%(165명)로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응급처치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받겠는가에 대해서는 74.9%(137명)만이 응답해 교육 참여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요구도와 연결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32, 앞으로 응급처치교육시 참여하겠다고 한 경우가 2.30으로 교육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참여는 대상자들이 평소 응급처치교육에 얼마나 노출됐으며, 얼마나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원하는 교육방법으로 53.3%(73명)가 이론수업 + 비디오 시청 또는 시범 + 실습을 선택한 것으로도 반영된다.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는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이 2.41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2.38로 나타났으며, 김⁴⁾의 연구에서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면 92.7%(102명)가 수강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고와 이의 연구¹³⁾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요구도에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이 2.4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상황과약이 2.22, 머리 및 척추부상이 2.21, 소아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 2.20으로 보고되었으며 거

의 대부분 2.0에서 2.2사이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요구도 평균(2.2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의 아동들이 빨리 배우고, 동기유발이 쉬우며¹²⁾, 학령기 어린이의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며, 규칙에 도전하려는 욕구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하다¹⁵⁾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특성은 역으로 안전사고 증가^{14,16,17)}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으나⁸⁾ 이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초등학교 때부터 응급처치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교육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2.06을 나타내어 고와 이의 연구¹³⁾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고, 심폐소생술도 2.29로 15개 항목 중 11순위에 머물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에 실린 응급처치 내용 분석에서 도움요청에 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응급의료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인지가 되어 있어 교육요구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 발생률이 흔치 않아 다른 응급처치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중적인 실기교육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에서 2위, 2순위에서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나타난 바 이론교육보다는 실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관심을 증폭시키고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에서 1위가 환자상태확인방법 38.0%(5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요구도에서 9위(2.30)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육요구도 항목과 실기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과 실기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로 보인다. 2순위(22.6%), 3순위(20.4%)에서는 공히 골

절, 탈구, 염좌처치법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처처치법은 1순위에서 3위, 2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혈법이 포함된 상처처치법이 필요한 초등학교에서의 베이거나 찢어진 상처의 발생빈도가 10.6%정도를 차지하여 골절, 관절 염좌와 관련된 사고가 70.3%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점과 증중도면에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과 연관지을 수 있겠다. 최초반응자의 역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폐소생술은 1순위에서 2위 19.7%(27명), 2순위에서 2위 21.9%(30명)로 나타나 실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은 실기교육에서 2순위에서는 심폐소생술과 공동 2위, 3순위에서는 2위로 나타나 역시 실기교육관심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응급환자운반법은 실기교육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편 고와 이의 연구¹³⁾에서는 성인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 실기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심폐소생술과 지혈법에 대한 실기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피급효과 면에서 중요한 응급처치교육대상이며⁹⁾,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생은 실기교육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면서^{10,11)}, 빨리 배우고, 동기유발이 쉬우며,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과 어른들에게 전달교육도 가능하여¹²⁾ 단계별로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시키기에 매우 효과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 입장에서 응급처치 중요도를 고려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생존의 사슬에서 중요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이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응급처치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초등학교 8개교 5학년 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분석 자료로 183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C 12.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도구의 신뢰도 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부분에서 여자가 56.3%(103명), 종교는 기독교 45.9%(84명), 없음 32.0%(59명) 순이었고,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64.5%(118명)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 중인 준거집단은 없는 경우가 54.6%(100명)로 가장 많았고, 준거집단 중에서는 RCY가 29.0%(53명)로 가장 많았다.
2.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관련 특성은 응급처치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가 78.1%(143명)이었으며, 교육방법은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이 36.7%(67명), 이론수업 + 실습이 28.3%(52명)로 나타났고, 이론수업 + 실습으로 교육받은 경우가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았다($2.47 \pm .36$). 또한 교육은 학교(65.0%)에서, 보건교사(61.2%)를 통해 받았고, 배운 내용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119에 연락하는 방법 50.8%(93명), 심폐소생술 36.6%(67명), 골절, 탈구, 염좌치치법 33.9%(62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은 대상자의

90.2%(165명)가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이 있으면 수강하겠다는 응답도 74.9%(137명)로 나타났고, 원하는 교육방법으로는 이론수업 + 비디오시청 또는 시범 + 실습이 53.3%(73명)로 나타났다.

4. 응급처치교육 요구도는 3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2.29이었으며,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이 $2.41 \pm .65$ 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골절, 탈구, 염좌치치법이 2.38로 2위였다.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의 1위가 환자상태확인방법 38.0%(52명), 2위가 심폐소생술 19.7%(27명)로 나타났으며, 2순위의 1위는 골절, 탈구, 염좌치치법 22.6%(31명), 2위는 공동으로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치치법 21.9%(30명)로 나타났고, 3순위는 1위가 골절, 탈구, 염좌치치법 28명(20.4), 2위가 기도폐쇄치치법 27명(19.7%)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처치교육수강경험과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는 교육받았던 방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 = 2.563, p = .025$). 또한 응급처치교육요구도 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는 응급처치교육 필요유무($F = 2.474, p = .015$), 앞으로 응급처치교육시 수강유무($F = 2.253, p = .026$)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보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육내용은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골절, 탈구, 염좌치치법, 지혈법, 상처치치법, 환자상태확인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응급처치교육요구도면에서는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처치법, 골절, 탈구, 염좌치치법의 요구도가 높았고

집중적으로 실기교육을 받고 싶은 우선순위에 한 자상태확인방법, 심폐소생술, 골절, 탈구, 염좌처치법, 기도폐쇄처치법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도폐쇄처치법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주된 교육내용과 중복됨에도 집중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수업과 연계된 응급처치교육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고, 장비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실습이 동반된 효과적인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 응급처치교육시에는 현재 교육 실태와 요구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학교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1)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자가 주로 보건교사 또는 체육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기교육이 동반된 응급처치 재교육이 필요하다.
- 2)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우선순위에 나타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한 학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Hazinski MF, Markenson D, Neish S, Gerardi M, Hootman J, Nichol G, Taras H, Hickey R, O'Connor R, Potts J, Berger S, Schexnayder S, Garson A, Doherty A, Smith S. Response to cardiac arrest and selected life-threatening medical emergencies : The medical emergency response plan for schools: A statement for Healthcare Provider, policymakers, school administrators, and community leaders. *Circulation*. 2004; 109:278-291.
2. 21C 안전국가 선도를 위한 '05~'10년 응급의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05.7.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 26. 법률 제 8267호 : 법 『제 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 1항, 제 2항, 제 3항.
4. 김미선.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실기교육 효과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와 환자 상태 확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8.
5. 김순심.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기본심폐소생술 실기교육프로그램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6. 홍경용, 남철현, 최상복, 위광복, 김기열. 중·고등학생 응급처치 지식수준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18(3):77-88.
7. 김훈철, 김세환, 박기동, 김승재. 중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강원대학교부설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999;23:89-102.
8. 이창희. 초·중·고 교과서의 응급처치교육 내용분석.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8.
9. Lester CA, Weston CF, Donnelly PD, Assar D, Morgan MJ. The need for wider dissemination of CPR skills : are schools the answer? *Resuscitation*. 1994;28(3): 233-7.
10.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사업 최종 보고서. 대한심폐소생협회. 2007. p.118.
11. Lewis RM, Fulstow R, Smith GB. The teaching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school in Hampshire. *Resuscitation* 1997;35(1):27-31.
12. Eisenburger P, Safar P. Life supporting first aid training of the publ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Resuscitation* 1999; 41(1):3-18.
13. 고봉연, 이정은. 대학생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01;19(2):259-268.

14. 고재문, 이재현. 학교안전사고와 응급처치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1):112-125. 1997.
15. Swell KH, Gaines SK.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hood safety education. *Pediatric Nursing*. 1993;19(5):464-466.
16. 배정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 및 발생사례분석 연구. *인제논총*. 2003;18(1):629-642.
17. 김우정.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분쟁사례. *자격연수*. 2004;3:179-189.
18. 박성은, 정연강, 박은자. 학교의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 *중앙간호논문집*. 2001;5(2):79-88.

=Abstract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mand Assessment of First Aid Education on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Keun-Ja Cho* · Eun-Sook Choi* · Hyeun-Ju Lee**

Background and Purpose: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are most adequate subjects for first aid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first aid education and needs of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3 higher grade students from 8 elementary schools. Data were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9 to April 13, 2007.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Cronbach's α ,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One Way ANOVA by SPSS win 12.0.

Result: 1. It showed that 78.1%(143 persons) of subjects answered that they learned first aid. 65% of subjects learned in the school(65%), 61.2% of subjects were taught by health teachers. 36.7%(67 person) of subjects was educated using practice with demonstration including lecture. Learned contents were action at emergency(50.8%), CPR(36.6%), splint (33.9%).

2. It showed that 90.2%(165 persons) of subjects answered that first aid and CPR education are necessary. Also 74.9%(137 persons) of subjects answered that will be educated first aid and CPR if opportunities is given. The 53.3%(73 persons) of subjects wanted teaching method using practice with demonstration including lecture.

3. The total mean showed $2.29 \pm .48$ in needs of first aid education by 3 points Likert scale. Needs of first aid education was ranked Heimlich maneuver($2.41 \pm .65$), splint and bandaging($2.38 \pm .59$). Priority of intensive training showed patient assessment(38.0%) and CPR(19.7%) in first, splint and bandaging(22.6%), CPR(21.9%) and Heimlich maneuver(21.9%) in second.

4. The needs assessment of first aid educ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eaching method($F = 2.563, p = .025$), education necessity yes or no($F = 2.474, p = .015$), attending future education yes or no($F = 2.253, p = .026$).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st aid education for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must be consisted of most adequate content and method based on current education condition and needs assessment.

Key Words: first aid education, education demands of first aid, highe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07. 9. 17	2007. 10. 3	2007. 12. 4

*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 Suchon Elementary School, Kongju city, Chungnam